

# 텃빈 관에 그리움만...목포신항 눈물의 작별식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영정과 유품 등을 실은 운구 차량이 지난 18일 오전 발인을 위해 목포신항을 떠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미수습자 5명 영결식...관속에 시신 대신 유품 채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가족 오열 속 추모객 ‘숙연’

“우리 아들, 갑자기 왜 이렇게 크게 울어, 아빠랑 헤어지기가 그렇게 싫나...” 세월호를 휘감고 도는 강풍소리를 들던 남현철군의 아버지 남경원씨가 울었거렸다. 남씨는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미수습자 5명의 추모식을 앞둔 지난 18일 오전 “1000일 넘게 아들을 기다렸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며 “오늘따라 바람도 거세다. 목포에 있었던 날 중에서 오늘 바람이 가장 거세다”며 울먹였다.

지난 18일 오전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신항은 갑자기 강풍이 몰아쳤다. 전날까지 관망하던 날씨에 이날 새벽부터 심하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추모식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추모 현화대와 스피커 등도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날아갔다.

현화대 등을 설치한 한 관계자는 “수십 년간 무대 설치하는 일을 해왔지만 오늘 같이 강풍으로 무대가 무너진 것은 처음 봤다”며 “미수습자들이 조금만 더 찾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참배객으로 참석한 한 목포시민도 “태풍을 제외하곤 이렇게 강한 바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날 목포지역에는 오전 9시부터 풍랑경보가 내려졌고, 딱 하루만인 19일 오전 9시 해제됐다.

예상치 못한 강풍으로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선수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추모식도 목포신항만 사육 옆 건물 2층인 예전 취재지원센터로 변경돼 치러졌다. 단원과 양승진 교사, 단원과 박영인·남현철군, 권재근씨, 권씨의 아들 혁규군 등 미수습자 5명은 지난 3년 7개월(1313일)

동안 진도 사고해역에서부터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신항까지 매 순간 나오기를 고대했지만,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날 마지막 작별을 앞둔 미수습자 가족들은 관속에 찾지 못한 시신 대신 꽃과 발견된 유품, 편지 등을 채워넣는 과정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추모식에는 미수습자 가족 20여명과 4·16세월호 참가족협의회 유가족, 추모객 등 500여명 참석했다.

실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세월호 미수습자 합동 추모식’ 현수막이 붙었고, 현화대 위에는 미수습자 5명의 영정과 국화가 놓였다.

추모식은 천주교·원불교·불교·개신교 등 종교의식으로 시작돼 유가족과 추모객 헌화, 전연순 금비예술단장의 세월호 추모시 낭송순으로 진행됐다.

양승진 교사의 어머니인 남상옥(84)씨는 국화를 아들의 영정 앞에 놓은 뒤 한참

을 흐느껴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남현철과 박영인군의 부모 역시 한참동안 자식의 영정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아냈다. 미수습자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권혁규군의 고모 권길순(71)씨는 “혁규아 왜 못나오고 있어”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목포신항을 찾은 많은 추모객들도 끝내 가족을 찾지 못하고 떠나는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아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추모식은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미수습자 가족들은 운구차와 버스에 통해 세월호가 거처된 곳을 한 바퀴를 돈 뒤 장례식이 치러지는 경기도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으로 떠났다.

한편 단원과 양승진교사와 박영인, 남현철군의 유품은 단원과 희생자가 잠들어있는 경기 평택 서호공원으로 옮겨지며,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의 유품은 인천가족공원 만월당에서 화장한 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 있는 인천가족공원에 보관될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선체 직립·추가 수색·특별법 통과 ‘산적’

### 세월호 남은 과제

미수습자 가족들이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신항을 떠났다. 131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향후 추가 수색과 선체 직립, 특별법 국회 통과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19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고원인 규명작업을 위한 선체를 바로 세우는 선체직립에 추진하고 있다. 선조위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선체 정밀조사가 불가

능하다고 판단했고 선체에 진입하는 조사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선체 직립을 결정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선조위는 기존에 수색되지 않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미수습자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선체를 세우면 세월호 좌현의 충돌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 등도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선조위는 선체 직립 작업에는 총 6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세월호 선체를 직립하기로 하고 정부와 관련 예산 등을 협의 중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해양수산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났지만 12월 말까지 용역계약을 한 코리아샷배지와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선체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수색은 화물칸과 기관실 등 거의 모두 마친 상태로 마지막 남은 수색구간은 진입하기 힘든 공간으로 선체를 직립하지 않고선 진입하기가 힘든 곳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제2기 4·16세월호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대법 “CCTV 영상 삭제 진도 관제센터장 징계 적법”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폐쇄회로 영상자료를 삭제한 진도 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진도VTS 센터장이었던 김모(48)씨가 낸 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 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자료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2 해질 17:24 | 달돋이 08:23 달질 18:54

**빨리 온 추위**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았다.

**◇지역별 날씨(°C)**

광주	구름많음	3/11	보성	구름많음	1/10
목포	구름많음	5/11	순천	구름많음	3/12
여수	구름많음	3/11	영광	구름많음	2/11
나주	구름많음	1/12	진도	구름많음	5/11
완도	구름많음	4/11	진주	구름많음	0/10
구례	구름많음	1/11	군산	구름많음	-1/9
강진	구름많음	3/11	남원	구름많음	-1/10
해남	구름많음	3/12	속원	구름많음	5/10
장성	구름많음	1/10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북서~북	북서~북	북서~북	북서~북
서해남부	앞바다	0.5~1.0	0.5~1.5	0.5~1.5	0.5~1.5
	면바다	1.0~2.0	1.0~2.0	1.0~2.0	1.0~2.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0.5	0.5
	면바다(동)	1.0~2.0	1.0~2.0	0.5~1.5	0.5~1.5
면바다(서)	북서~북	1.0~2.0	1.0~2.0	1.0~1.5	1.0~1.5

**◇생황지수**

산불	보통
자외선	낮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09	02:53
여수	20:43	15:32
	03:29	10:07
	16:07	22:02

**◇주간 날씨**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	☀	☁	☁	☀	☀	☀
2/12	3/13	4/10	4/12	2/14	4/15	1/8

## 전남경찰 2년 연속 체감안전도 전국 1위

전남경찰이 2년 연속 체감안전도 전국 1위에 올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9일 “경찰청이 시행한 2017년 하반기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화 설문 등을 통해 전국 252개 경찰서(전남 21개 경찰서) 주민 100명씩, 총 2만5200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의 범죄·교통사고 안전도, 범죄자 준수도 등을 조사했다.

전남청은 종합 점수 76.6점으로 전국 평균 73.3점보다 3.3점이 높았으며 전국 17개 지방청 중 1위를 기록했다. 전남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종합 점수 76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은 “도·농 복합 지역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치안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석면 건물 어디?” 오늘부터 검색

### 환경부, 전국 2만4868곳 주소·위해성 등급 공개

20일부터는 주변의 석면건축물 주소와 위해성 등급을 찾아볼 수 있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 석면건축물 현황을 알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국 2만4868개 석면건축물의 주소, 용도, 위해성 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석면건축물 수는 경기도 3959개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3093개), 경북(2211개), 경남(2106개) 순이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별도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과 초·중·고 건물물은 해당 학교 누리집에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이번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최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김홍희기자 kimhy@

# 물로(水)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기부 기쁨!!**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신행 고객 (공제안 및 예적금방안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일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가입시
스마트일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천대상

**정기에탁금**

1년 **2.4%**

2년 **2.5%**

**정기적금**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의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MG 금남새마을금고** |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